

안녕하세요? 예병일입니다.

전염병을 공부하다 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통치자이자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해군 장교로
전쟁터에 출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쟁터에 군인 외에
학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로제타 돌을 해독하는 등

고대 이집트 문명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놓은 분입니다.

나폴레옹이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의학 역사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의학 발전에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이전의 전쟁에서는
전투병이 진격한 후에

보급을 맡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진격속도가 빨라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투병 각자가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전쟁 수행에 효과적이라
생각한 나폴레옹은

음식을 가져가기 쉽게 하기 위한
포장법을 개발하게 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통조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통조림은 포장을 잘하기만 하면
더 이상 상하지 않으므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또 영국에서 제너가 중두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골 의사의 발견을 무시한
런던 주류사회의 반응과 다르게

나폴레옹은 재빨리 프랑스에
중두법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두창 유행을
일부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의사를 많이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는
전투에 의한 사망자보다

감염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병사들이 더 많았으므로

나폴레옹도 전투보다 감염병 유행에
신경을 더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력 손실이 심하여
도저히 전투를 할 수 없었던 병사들은

진격 도중에 수용시설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들이 남아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수용시설도 오늘날
병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식민지 등
코르시카 섬 출신으로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을 맡아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요.

1798년에 이집트 원정을 갈 때는

약 3만5000명으로 구성된 군대에
약 300명의 학자를 포함시켜서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 자원, 역사 등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겨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혀놓기도 했습니다.

1799년에 500인회를 해산하면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나폴레옹을 좋아하여

<영웅 교향곡>을 작곡한

독일의 베토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정치적 야망에 실망하여

악보를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의 진군에는
막힐 게 없이 승승장구했지만

이듬해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이 이끈 영국군에 패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1806년에
대륙봉쇄령을 내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영국과 무역을 못 하게 했는데요.

목적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국은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와의 무역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럽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가 더 컸습니다.

특히 타격이 큰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명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했는데요.

이것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진군하게 된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나폴레옹은 1811년 말부터

대부대를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할 때
당시 유럽인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큰 군대가 있었으나 할 정도로

많은 병사, 50~60만 명을
이끌고 갔으므로

이를 그랜드 아미(Grand Army),
우리말로 대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가 설명을 하자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물리친

수나라 군사는 병력만
113만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병력보다 식량 배급 등
지원인력이 더 많았다고 하니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랜드 아미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중국 역사에서는

흔한 규모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나폴레옹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위해 나폴레옹이
여러 나라에서 차출한 부대는

언어가 다양하고 규율도 문란해서
시작부터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812년 6월에 러시아를 향한
행군이 시작되자

발진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이
유행하면서 환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지나는 동안

약 6만 명이 죽거나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당시 러시아의 작전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쓸 만한 것을 치워놓고
물러나기만 했고

전염병의 유행에 의해
환자가 발생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에는 군수품 보급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지역마다 약탈을 감행하여
황폐화시키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은 것이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폴레옹의 군대에
유행하고 있던 발진티푸스가

'이'에 의해 옮겨진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던 것은 당연합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프랑스 군대는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길게 늘어졌고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변 건물을 이용한 것이

병원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의사도 많지 않았으며
약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9월 중순, 프랑스군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시민과 음식이
사라져버린 빈 도시였습니다.

그나마 모스크바에 남아있던
러시아인들은 도시에 불을 질러버렸고

원하는 대로 모스크바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해 추위도 빨리 찾아왔고
불에 타 사라지는 모스크바를 지켜보며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다른 물품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폴레옹이

완전 퇴각을 명령한 것이
10월 19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먹을 게 없어서
말을 잡아먹기도 했고

추위와 필요에 의한 고통과 함께
음식 부족으로 고생했음은 물론

마실 물조차 부족하여
눈을 녹여 마셔야 했으며

중간에 군대를 이탈하는
병사들도 많았지만

이탈해도 딱히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했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3만 명에 불과했으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하겠습니다.

후퇴 과정은 여러 프랑스 장교들이 쓴
회상록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회상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들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부터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와 기아가
이들을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건 말이건
전쟁에 불려 나온 것은 무엇이든

질병, 상처, 배고픔, 추위로
고생을 했습니다.

음식은 어느 곳에서도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미 바닥난 전투력으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어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타고 간 말을 잡아먹고

눈(雪)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으며

전쟁 시작과 함께 동행한 발진티푸스는
돌아오는 길은 물론

귀향 후 일반인들까지
감염을 시켰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설립한
수많은 수용소는 환자로 넘쳐났고

죽은 사람이 복도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병원이
질병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했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이루어질 형편이 못 되었죠.

필수품이 극단적으로 결핍되면서

각각의 병사들은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게 되었고

군대의 명령체계는
더욱더 와해되었습니다.

많은 병사가 대열을 이탈하여
주변의 마을에 약탈을 하러 갔고

다른 이들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거나

질병으로 귀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패잔병들이 오늘날의 독일인
프러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프러시아인들에게도 발진티푸스가
번져나가는 등

국지적인 유행이 다음해까지
계속되었고요.

러시아 원정 이후에 작은 전투를 통해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시아까지

다시 한 번 발진티푸스가
유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사는
약 3~4만 명이었고

영국,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진
프랑스를 공격하여

1814년에 파리를 함락시킴으로써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듬해 3월에
탈출하여 다시 황제에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에 항복하면서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된 것이
인생의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발진티푸스는 그 원인체가
세균보다 작은 크기이고

세균보다 다른 종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종류로 보기도 하는

리케차 중의 한 종류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입니다.

주로 '이'에 의해 전파됨으로
러시아 진군 시

그전에는 나폴레옹 군대에서
모포 소독을 했지만

이때 하지 않은 것이 발진티푸스
유행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됩니다.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오한,
발열,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

피부가 빨강게 변하는
발진이 몸에 생기고

특징적으로 얼굴과
손, 발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심하면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순환장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요즘은 약으로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은 발진티푸스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유럽 역사를 바꾼 작은 거인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복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주인공이

발진티푸스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 명성이 바랬다고는 하지만

발진티푸스는 언제든
인류를 덮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진티푸스를 일으키는
리케차가 살지 않으므로

외국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